사랑의 복잡성: 복잡성의 틀로 본 사랑

양운덕

*사랑, 이성과 광기의 통일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랑은 A이다.' 또는 '사랑은 B-D이다'라고 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랑은 A라는 규정할 수 있는 대상, B-D라는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여전히 규정 가능한 대상이다. 과연 사랑을 이렇게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사랑은 이것이거나 저것, 또는 이것과 저것의 합(또는 저것 없는 이것)인가?
질문을 바꿔보자. 사랑은 단순한 것인가, 복잡한 것인가? 사랑 앞에서 갈등하는 수많은 주인공들은 상반되는 사랑의 두 얼굴(또는 열 가지 얼굴)을 하나로 합치거나 단일한 것으로 환원하고자 한다. 단 하나의 얼굴만 지닌 것으로 단순화된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미친 짓'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은 떠난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없이 고이 보내며 진달래 꽃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속울음을 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사랑으로 사랑이 지닌 역설, 모순, 불확실성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단순한 사랑관은 사랑의 역설, 모순을 무시하거나 사랑에 서투른 자의 둔한 판단, 어리석은 행위 탓으로 돌릴 것이다.
복잡성complexité의 이론가 에드가 모랭은 '기초 인류학'에서 인간을 이성적 인간 homo sapiens이나 미친 인간homo demens이 아니라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미친 인간homo sapiens-demens'으로 본다. 인간은 이성적이지만 동시에 예술을 즐기고, 이미지와 허구 세계를 창조하고, 놀이에 몰두하며, 축제에서 열광하고, 꿈을 꾸고 사랑하는 점에서 미친 인간이기도 하다.

이런 인간은 선의와 악의를 동시에 지닌다. 인간은 약점, 무가치한 결점을 지니고 더 없이 잔인하지만 동시에 배려하고 우아하기도 하다. 파괴와 창조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의식과 무의식을 지닌 양면적인 존재이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존재인 인간에게 사랑은 어떤 것일까?

사랑은 이성적 원리를 지니는가, 아니면 광기에 지나지 않는가? (플라톤은『파이드로스』에서는 사랑을 신성한 광기로 보고,『향연』에서는 에로스가 진리에 이르는 통로이고, 에로스를 통해서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사랑이 광기에 넘치는 것이라면 사랑에는 이성적 측면이 전혀 없는가? 거꾸로 사랑이 이성적 인간의 작업이라면 사랑에 내재하는 열광과 광기의 측면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할 때, 사랑하는 과정에서, 질투에 내몰릴 때, 사랑의 위기 앞에서 이성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가? 이런 사고는 사랑의 한 측면에만 매달림으로써 사랑을 단편화, 단순화, 일면화할 뿐이다.

모랭의 복잡성의 사고는 상반되는 이성과 광기를 사랑에서 함께 사고하고, 사랑의 역설, 모순, 모호함, 불확실성 같은 측면들에 주목한다. 그는 사랑이 "이성과 광기가 통일되는 정점"(Morin, 1997, 32)1)에 있다고 본다. 이성과 비이성을 고립시켜 그 하나만 주장하는 것이 단순화하는 모델이라면, 사랑에서도 이성이나 광기 만으로 사랑을 단순화하는 사고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정의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의 복잡성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그리고' 광기를 지닌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동시에' 광기를 지닌 것처럼) 사랑은 이성과 광기라는 상반된 것을 동시에 지니고 상반된 힘에 이끌리고 그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복잡한 관계이다.

복잡성이란 뗄 수 없이 결합된 이질적인 구성요소들의 조직tissu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다양하고 상이한 실들로 짜여진 '하나'의 천이다. "(당신을) 사랑해요je t'aime"라는

말의 명백한 정합성 뒤에는 상이한 구성요소들의 연합들이 있다. (A 16) 이를테면 사랑에는 물리적, 생물학적 구성 요소가 있는가 하면, 신화적, 상상적인 구성요소들도 있다. (후자는 단순히 상부구조이거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인간 현실이다.) (A 16-7)

또한 사랑은 역설을 지닌다. 한 예로 사랑은 신체적 존재에 뿌리박고 있어서 사랑이 말에 앞서지만, 동시에 정신적, 신화적 존재에 뿌리박고 있으므로 말이 사랑에 앞선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말에 따르면서 동시에 말에 앞서는 역설적인 것이다. (A 17)

(사랑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문화들이 있다.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나타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가? 이 경우에 사랑은 말하지 않음non-dit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인가? 라 로슈퓨코는 만약에 사랑의 소설들이 없었다면 사랑을 알 수 없으리라고 지적한다. 그러면 사랑의 문학은 사랑에 구성적인가? 그것은 사랑을 촉진하고 드러나게 하고 감각가능하고 활동하도록 하는가? 모랭은 이런 사랑에 관한 말에서 진리와 함께 환상과 기만이 표현된다고 지적한다. (A 17-18)

* 인간화 과정과 사랑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 관련해서 사랑이 어떤 측면들을 포함하고, 인간화과정 hominisation에서 사랑은 어떤 고유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자.

동물의 삶에서 사랑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포유류에서 진화해왔으며, 정서적 성격affectivité은 포유류들에게서 발전된 것이다—사랑의 동물적 원천. 새들은 영장류나 포유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현상들을 표명한다. 서로 짝을 이루어 평생을 함께 하는 한 쌍의 새들은 "천생연분inséparables"이라고 할 만하게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강박적으로) 입맞춤하면서 보낸다. 상이한 두 성 간에 "사랑스러운 뽀뽀

charmants petits bécots"를 멈추지 않으면서 어쩌면 그토록 강렬하고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런데 포유류에게는 그 이상의 것인 체온이 있다. 온혈 동물들의 체모에는 따스한 기운이 있다. 새끼 포유류는 차가운 세계에서 미숙한 채로 태어난다. 그들은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지만 발육 초기에 엄마와의 따뜻한 결합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분리 속의 결합l'union dans la séparation, 결합 속의 분리는 사랑에 특징적이다. 유아와 엄마가 맺는 이런 감정적affective이고 강렬한intense 관계는 영장류와 인간들에게서 변형되고 연장되고 확대된다. 침팬지에게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이때 근친상간은 존재하지 않는다.)(A 19-20)

인간화 과정에서 성인 인간은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다정함affectivité, 정서적 강렬함을 보존하고 발전시킨다. 포유류는 이런 다정함을 응시, 입, 언어, 소리로 표현한다. 입에서 비롯되는 이것들은 언어에 앞서는 사랑의 말과 같은 것이다. 아기를 핥아주는 어미, 손을 핥는 개의 경우에 이것들은 이미 인간 세계의 입맞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A 20)

사랑의 동물적, 포유류적인 뿌리와 관련해서 볼 때, 인간화과정에서 비롯된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적 이끌림이 영속적이다. 영장류의 경우에는 (암컷이 매력적이 되는) 발정기가 정해져 있어서 성은 주기적으로 제한된 것이지만, 인류는 성적 매력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지속된다. 게다가 다른 영장류에게서 교미는 후위로 이루어지지만 인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face-à-face를 갖는다.2) 그 때문에 얼굴은 특이한 역할을 한다.3)

제인스Jayens에 따르면 고대 제국들에서 인간 정신은 단일하지 않고 양원제적(bicaméral:兩院制的)이다(『의식의 기원과 정신의 분열』). 단순히 한 두뇌의 두 반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두 방이 있다. 첫 번째 방에는 위로부터 오는 것-- 신들, 신-

왕roi-dieu, 사제들, 제국 등--의 초월적 질서들이 있다. 개인들은 명령받은대로 좀 비처럼 복종한다. 이는 사회의 명령이 신성한 본성을 지니거나 신성화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은 사적인 삶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자녀들과 다정하고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갖고, 부인과 정서적, 성적 관계를 갖는다.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인데, 신성한 것, 종교적인 것은 단하나의 방에 집중된다.) (A 22)

그런데 5세기 아테네에서 의식conscience이 뜻밖에 출현irruption하는데, 이는 두 방이 소통에 열렸음을 보여준다. 특정한 시기에 첫 번째 방의 과도한 신성함이 멈추고 상이한 측면들이 서로 마주보게 된다. 권력을 얻은 신성함은 추락하고 개인 존재에 고착되는데, 이 대상이 바로 사랑받는 존재l'être aimé이다.

문명에서 개인이 자율성을 얻고 그것이 개화하는 경우에, 사랑은 주제화되고 그것 자체로 인정받는다. 신성한 것, 숭배되고 찬양받는 대상은 모든 것을 구체적인 살을 지닌 인간에게 투사될 수 있다—애정이 넘치는amoureuse 대상에 고정됨. 사랑은 신성한 것과 통속적인 것, 신화적인 것과 성적인 것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개인들과 관계 맺으면서 점점 더 신비한 황홀한 경험, 숭배와 신성한 경험을 겪는다. (A 23)

욕망이 나타날 때 성적인 존재는 (그들로부터 아주 멀리 온 것과 그들을 넘어서는 것의) 이중적 소유/사로잡힘double possession에 예속된다. 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재생산의 주기, 유전학génétique은 우리를 소유하는/사로잡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가 소유하는/사로잡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이런 욕망이 첫 번째 소유이다. (A 23)

또한 신성한 것, 종교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것 역시 우리를 사로잡는다. 성적 생활의 기원에서 비롯되는 신체적 사로잡음은 신화적인 것에서 오는 신체적 사로잡음과 만난다. 이런 마주침에서 사랑이 문제가 된다. 곧 우리는 이중적으로 사로잡히고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사로잡는다. 고유한 자산인 신체적 동기와 신화적 동기가 맞물린

다. (A 24)

*사랑의 질서와 무질서

그러면 욕망과 사랑의 비사교성/야만성sauvagerie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회 질서와 관련된다. 동물 사회들의 구성원들은 제도를 지니지 않지만 규칙들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우두머리 수컷이 대부분의 암컷들을 독차지하는 까닭에 다른 수컷들을 짝짓기에서 배제한다. (이것이 위계적 규칙과 관련된 것일 수 있지만 제도적인 규칙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인간은 제도들을 창조하고 족외혼, 부모 되기 규칙들을 제도화하고 결혼을 엄격한 양식으로 규정한다. 모랭은 인간 사회에서 결혼이 사회적 범주들의 동질성에 복종하는지를 보는 것은 놀랍지만, 욕망의 현상과 극복된 사랑 현상이 이런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한다—사랑, 결혼의 두 얼굴. "물론 사랑은 지나치게 족내혼적endogame이고, 근친상간적이 되지만 또한 사랑은 지나치게 족외혼적exogame이고 사랑은 사생아적adultérin이고, 집단, 부족, 조국을 배신하기도 한다."(24-5) 이런 사랑의 비사교성sauvagerie은 은밀함과 위반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사회적 개화로 고양된) 사랑은 사회적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런 장벽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위반한다. 이런 사랑은 "보헤미안의 자식"이다. (A 25)

그리고 신화로 경험된 사랑과 욕망으로 경험되는 사랑 간의 분리séparation에 따른 양극성이 문제가 된다. 한 극단에서는 열광적인exalté 정신적인 사랑을 찬양하고, 다른 극단에서는 성이 동물성bestialité에나 어울리고 매춘에 내맡겨진다—저주받은 부분. 사랑의 양극성은 개인을 숭고한 사랑과 저속한 욕망 사이에서 분리시키지만, 양 극단 사이에서 대화와 소통이 마련되기도 한다. 신체의 충만함과 동시에 영혼의 충만함이 만나

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A 25-6)

우리는 사랑에서 결합뿐만 아니라 분리도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헤겔이 사랑의 고유함을 "일치union와 불일치désunion의 일치"라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의 일치에는 불일치가 내재하고, 불일치와 긴장관계를 지닌 일치는 영속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다. 상반되는 두 힘은 긴장, 갈등 관계를 이루면서 대립하면서 서로를 보완한다.)

욕망, 성을 포함하는 사랑은 매춘에 고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참된 사랑은 성교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랑 없는 욕망은 성교 이후의 슬픔으로 해소되고 만다. 모랭은 인간을 성교 이후에 슬픔에 빠지는homo triste post coitum 존재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주체에게는 성교 이후의 행복felix post coitum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A 26)

---

2) 영화 <불의 전쟁La Guerre du feu>은 얼굴을 마주한 사랑의 출현을 우아하게 표현한다.

3) 호모 사피엔스를 특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성교의 강렬함이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고대, 근대 사회에서 제례의식, 축제, 숭배 등과 관련된 황홀경 같은 이차적인 상태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과 시와 연결된 이차적인 상태의 황홀경의 추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신화들, 숭배, 존경, 찬양 현상들 주변에서 고대 인간들에게서 신성화된 인격이 나타난다. (A 21)

---

*사랑에 내재하는 파괴와 재생

사랑은 영속적인가? 사랑에는 사랑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힘이 있지 않은가?

열역학적 사고에서 모든 대상은 내적 파괴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랑은 퇴락과 보편적 해체의 원리인 열역학 2법칙에 예속된다. 그렇지만 생명체는 그 법칙에 맞서

서 엔트로피를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나름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들은 자신에 내재하는 고유한 해체를 바탕으로 삼아서 존속한다. (A 26-7) (슈뢰딩거는 생명체가 마치 열역학 2법칙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조직의 역설적 측면을 지적한다. 모든 물리 체계가 쉴 새 없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반해서, 생명 기계는 엔트로피를 낮추면서 조직을 증식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발생적' 가능성을 지닌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은 죽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생명과 죽음은 별개의 것인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 있고. 죽음은 그 바깥에 삶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인가?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의 단편에서 "죽음 속에서 살고, 삶 속에서 죽는다."고 지적한다.4) 삶과 죽음이 맞물리는 과정에서 생명체는 해체되면서 동시에 조직되는 과정적 존재이다.

세포들은 퇴락하면서se dégradent 죽지만 다른 세포들에 의해서 대체된다. 우리는 해체과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젊어지도록 한다. 생명체는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쇠퇴하는se dégrader 인공기계와 달리) 스스로를 쇄신하는 능력을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랑에는 어떤 적대성이 들어있고 또 그것을 재생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사랑도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면서en renaissant 나름의 항상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A 27)

돌멩이와 촛불 앞에서 "우리 사랑 영원히!"라는 소망을 살펴보자.

생명조직과 물리적 조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명체는 열린계로서 (닫힌계로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와 달리) 주변 세계와 에너지, 정보, 물질을 교환하면서 항상성 homeostasis을 유지한다.

돌멩이 같은 닫힌계는 외부와의 물질, 에너지의 교환 없이 평형상태로 있다. 반대로

촛불 불꽃의 항상성, 세포나 유기체의 내적 환경의 항상성은 평형에 매어있지 않으며, 에너지 흐름에 비 평형이 있다. 이런 비 평형은 계의 평형을 유지해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마련한다. 따라서 안정되고 항상적인 상태는 역설적이다. 촛불의 불꽃이나 유기체에서 구조들은 구성요소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으로 유지된다. 열린계는 비평형을 통해서 안정된 역동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사랑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변치 않는 것이길 바라는 것은 열역학 법칙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은 닫힌계가 아니라 열린계로서 죽음과 삶의 변증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부활, 갱신, 쇄신하는 힘을 지닌 것이 아닐까?

숭고한 것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태어나는 상태 가운데 있고, 사랑에 빠짐énamourement은 (고정된 상태로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워진다. 프란체스코 알베로니Francesco Alberoni는 사랑이 태어나는 것, 영속적으로 쇄신régéneration되는 것이라고 본다(『사랑에 빠짐과 사랑Enamorento e Amore』)

사회에서 제도화되는 모든 것, 삶에 설정되는 모든 것은 해체되거나 무미건조해진다. 사랑에 집착할 때 이런 집착이 때로는 욕망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빠져들기 s'affrofondir 때문에 비극적 결과에 이른다. (A 27-8)

어떤 행동학자는 침팬지의 성장한 아들이 자신의 어미와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한 쪽이 다른 쪽에 성적 이끌림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이런 생식 충동의 금지는 어미-아들의 오랜 애정attachement에서 나온 것이다. 오래되고 지속적인 애정은 혈연적 유대lien 보다 더 친밀하지만 욕망의 힘을 해소시켜서 그것을 모르는 자, 새로운 존재로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 (A 28)

사랑은 (생명처럼) 역설적이고, 사랑은 (지속하는 생명처럼) 지속하는 힘을 지닐 수 있다. 우리는 죽으면서 살고 살면서 죽는다. 사랑은 잠재적으로 쇄신될se régénérer 수 있어야 한다. (A 28)5)

모랭은 신화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일치가 '눈'으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한다. 사랑스러운 눈길regard은 자력처럼 이끌거나magnétique 전기현상을 일으키는électriques 경향이 있다. 그것은 열광으로 고양되는 점에서 (보아뱀이 병아리에 열광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지만) 상호적일 수 있다. 이상한 힘을 지닌 눈들이 동시에 서로 마주치면서 물리적 힘과 신화가 만나고 그들의 영혼을 국지화한다.

입술에도 이 같은 힘이 있다. 입술은 (먹고 소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인간학적 개념에 상응하는 숨결이 오가는 길이다. (서구가 대중화한) 입술에 입 맞추기는 입술의 생물학적이고 에로틱한érotiques 신화적인 능력의 놀라운 만남을 집중시키고 구체화한다. 입맞춤은 타자와의 물리적 일치에 대한 유비analogon이자 영혼이 융합되는 두 숨결의 융합이기도 하다. (A 29)

이런 입술은 신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것에 열려있는 특이한 어떤 것이 된다. 이런 입술은 말하고, 이런 말에는 매우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사랑의 말들 paroles d'amour이 사랑의 침묵에 뒤따른다. (A 29-30)

얼굴은 사랑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結晶化한다. 얼굴을 부각시킴으로써 (특히 영화가 등장한 이후) 찬양, 칭송, 거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얼굴은 홀로그램처럼 사랑의 총체성을 포함한다.6) 개인적 사랑에 신성한 것, 종교적인 것, 신화적인 것, 신비한 것의 범주들이 도입되고 그것들이 보다 심층적인 곳에 뿌리내린다. (A 30)

*사랑의 복잡성

사랑의 복잡성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계몽의 시대를 주도한 합리주의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으로 사랑의 복잡성을 사고할 수 있는가? 이런 차가운 이성은 사랑을 해소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환상과 광기, 일종의 병리 현상으로 여긴다. 낭만주의 사고에서 사랑은 존재의 진리이었다. 그러면

“사랑을 아는 이성raison amoureuse”, 냉각된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성이 있는가? (A 30-1)

차가운 이성은 신화를 피상적인 부대 현상, 환상적인 것으로 여길 뿐이다. (18세기에 종교는 사제들의 고안물이었고 민중들을 속이려는 사기 행각이었다. 이 세기는 종교적 욕구의 심층적 뿌리, 특히 구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했다.) (A 31)

그런데 신화의 인류 사회학적anthroposociale 심층에 주목하면 신화의 (심층적인) 현실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현실은 신화적 구성 요소를 지닌다. 이성적 인간과 미친 인간, 광기와 지혜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언제 그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아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는 가역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합리적인 삶은 순수한 광기로 바뀔 수 있다는 이성의 꿈에도 광기가 있다. 자기 안에 갇힌 이성은 ‘광기’이고, 최악의 광기는 자신이 광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이성을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추진하면 망상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랭은 사랑이 “광기와 지혜가 일치하는 정점”(A 32)이라고 본다. 사랑은 근본적인 모순을 짊어지는 것이고 사랑에서 광기와 지혜는 공존한다. (A 32) 그는 인간이 신화 없이 살 수 없는데, 신화들 가운데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력하고 아마도 우리가 애착을 가질만한 유일한 신화”(A 32)라고 본다.

이런 신화와 공생하는 태도는 (신화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적대성-수용의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복잡성을 구체화한 대화 원리는 적대적이고 경쟁적이면서 보충적인 것에 주목한다. 적대 관계에서 한 항이 다른 항을 제압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협력해서 조직하면서 새로운 복잡성을 생산한다. 엔트로피-음의 엔트로피, 쇠퇴dégénération-쇄신régénération 사이에는 경쟁하고 적대하면서 동시에 보충하는 관계가 작용한다.)

모랭은 이와 관련해서 파스칼의 내기를 참조한다. (A 32-3)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의 필연성"을 경험적,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곧 사랑에 찬성하거나 사랑에 관해서 내기를 할 수 밖에 없다.8)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이나 다른 이의 삶을 구속하는 engager 힘을 마주한다. 사랑은 자기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모험"이다.

하지만 플라톤이 지적하는 영혼의 불멸성을 참조할 때, 사랑은 감행할만한 "아름다운 모험"이기도 하다. 사랑은 "아름다운 신화"이다. 사랑에서 방황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그녀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에 절대적인 답을 줄 수 없다. 사랑은 번개를 맞은 것처럼 갑작스럽고 전 존재를 불태우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자를 방황과 표류에 휩쓸리게 한다.

사랑은 "진리의 감정"을 지니지만 진리의 감정은 가장 커다란 오류의 원천이기도 하다. 사랑은 불행하게도 얼마나 큰 환상을 심어주는지! (A 34)9)

이런 까닭에 사랑은 "가장 참된 종교일 수 있고, 동시에 가장 참된 정신적 병일 수 있다." 우리는 (대등하게 현실적인) 양 극단 사이에서 동요한다.

개인적인 진리는 타인에 의해서 드러나고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에서 타인의 진리를 발견한다. (A 35) 사랑의 진정성l'authenticité과 관련해서 우리의 눈에 따라 타인을 보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진리에 의해서 오염되는contaminer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의 욕구besoin를 짊어지고 (번개를 받아들이는 과정) 열광의 과정을 개시하기에 좋은 순간의—나쁜 순간일 수도 있다—만남un rencontre을 추구한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사랑의 필요/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한다.

사랑하는 이들은 고착되고 굳어지면서durci, 또한 (그들의 이미지가 된) 그들의 토템

인 타인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들은 숭배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무시한다. 자신과 타인

에 대한 이런 몰이해가 사랑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사랑의 아름다움은 자기에게서 타인의 진리, 타인에게서 자기의 진리가 상호

침투하는 것이고, 사랑의 진리를 타자성을 통해서 찾는 것이다." (A 36)

---

2) 영화 <불의 전쟁La Guerre du feu>은 얼굴을 마주한 사랑의 출현을 우아하게 표현한다.

3) 호모 사피엔스를 특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성교의 강렬함이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고대, 근대 사회에서 제례의식, 축제, 숭배 등과 관련된 황홀경 같은 이차적인 상태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과 시와 연결된 이차적인 상태의 황홀경의 추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신화들, 숭배, 존경, 찬양 현상들 주변에서 고대 인간들에게서 신성화된 인격이 나타난다. (A 21)

4)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 116 "불사자들athanatoi은 가사자들thnētoi이고 가사자들은 불사자들이다. 저

들의 죽음을 살고, 저들의 삶을 죽으니까"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5) 모랭은 사랑이 시와 관련된다고 본다. 사랑은 그 자체에서 (일상적 삶을 지배하는) 산문과 (일상적 삶

6) 홀로그램적 원리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한다. 물리적 이미지인 홀로그램에서 그 이미지의 미소한 점들은 표상된 대상에 관한 정보의 준-총체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부분은 전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부분 안에 있다. (유기체의 각 세포들은 그 유기체의 유전정보 총체를 포함한다.) 홀로그램 조직에서 부분들이 갖는 특성을 보자. ①부분들은 전체 조직이 지닌 일반적이고 발생적인 성격들을 배치하는 단일하고 독특한originale 것이다. ② 부분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③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조직상의 교환을 실행한다. ④ 부분들은 전체를 쇄신하는 사건적인 것이다.이 틀에서 전체는 부분 안에 일정한 방식으로 기록되는데 바로 그 부분은 전체에 포함된다. 전체의 복잡한 조직화는 단일성을 지닌 각 부분들에 기록된다. "나는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다"(파

스칼). (양운덕, 6장)7) 오로지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려는 것, 가능한 한 장수하려는 의지. 지나친 영향 섭취를 기피하는 것,과도하고 지나친 사랑(사랑의 과잉excès amoureux)을 거부하는데 집착하는 것처럼 합리적 계산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에는 어떤 광기가 들어있는가?

7) 현실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장악할

에 새로운 활기를 주는) 시 사이의 대화로 작용한다.

8) 이런 내기 관념에는 존재론적 오류, 환상의 위험이 있다. "절대적인 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9) 진리의 감정이 없는 진리만큼 빈곤한 것은 없다. 우리는 2+2=4라고, 이 탁자가 탁자이고 의자가 아니라고 진리를 확증하지만, 이런 명제에 관해서 진리 감정을 갖지는 않는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감정이 없다면 그것이 체험된 진리일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리의 원천은 동시에 가장 위대한 오류의 원천이기도 하다. (A 34-5)

---

* 사랑--시--지혜

모랭은 사랑의 문제가 상호적인 사로잡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를 소유하는 것을 소유하기/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사로잡기posséder ce qui

nous possède."(A 36) 우리는 우리에게 선행하는 과정에 의해서 산출된 개인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는 사물들, 우리 너머로 나아갈 것들에 의해서 소유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10)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주의가 아니라) 삶의 경험 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삶을 직조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모랭은 이런 사랑이 시, 지혜와 상관적이라고 본다. 사랑은 삶의 시적인 부분—일상생

황을 지배하는 산문적인 것이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삼키지 않도록 하는 요소--을

이룬다. "사랑은 삶의 시 la poésie de la vie의 일부를 이룬다. 시는 삶에 대한 사랑

l'amour de la vie의 일부를 이룬다." 사랑과 시가 서로를 낳는다면 서로 동일시될 수 있다. 만약 사랑이 지혜와 광기의 지고한 통일이라면 사랑과 시와 지혜는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 산출하는 상호작용의 원을 이룰 것이다. (A 10)

그래서 사랑이 광기와 지혜가 일치하는 頂點이라면 사랑에서 지혜와 광기는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산출한다.11) "시적인 상태는 우리를 광기와 지혜를 가로질러서 광기와 지혜 너머로 이끈다." (A 9) (이런 사랑-시-지혜에 관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보충하기로 하자.)

참고문헌

양운덕(2002),「모랭의 복잡성 패러다임과 자기 조직화」, 과학사상 42호.

Morin, Edgar(1997), Amour, Poésie, Sagesse (A로 줄여 씀), Editions du Seuil.

_____(1973), Le Paradigme perdu: la nature humaine, Seuil.

_____ La Méthode. 2. La Vie de la Vie, Seuil, 1980.

3. La Connaissance de la Connaissance, Seuil, 1986.

5. L'humanité de l'humanité: L'identité humaine, 2001.

---

10) 조직적 재귀récursion organisationnel에서 최종 산물들, 결과들은 최초 상태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과들이 동시에 '원인들'이 되고 산물이 그것의 '생산자'가 된다. 재귀적 고리boucle récursive는 전통적인 원인-결과의 직선적 모델을 재고하고 조직화를 다르게 이해한다. 개체와 종, 재생산의예를 들어보자. 개체들은 그것들에 앞서는 재생산 과정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일단 개체가 산물들인한에서 개체는 계속되는 과정의 생산자들이어야 한다. 사회와 관련시켜보면, 사회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들에 의해 산출되지만 그것이 일단 생산되고 나면 개인들과 그 산물들에 반작용한다. 개인들은사회, 문화, 언어, 획득된 지식이 없다면 인간적 개체로 형성될 수 없다. 개인들

은 사회의 산물이면서그들을 산출하는 사회를 산출한다. 개인들은 산물들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들이다. (양운덕, 6장)

11) 시는 문학적 표현 양식만을 뜻하지 않고, 열기, 경탄, 친교communion, 酩酊, 열광에 참여하는 상태이다.